

遵價투쟁은 어때요?



“

인쇄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가 지켜져야만 한다. 최소한 조달청기준 요금은 유지해야 인쇄업계가 살아 갈 수 있다. 일차적으로 동업자끼리의 문제이므로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설 일도 아니고 보면 인쇄인 스스로가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는 헌법제1조에서 명시하듯이 민주공화국이고 요즘은 그야말로 사회전체가 민주화 물결로 출렁거리고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선진민주국가에서는 개인 인권이 존중되고 법률체계와 사회질서가 끈게 잡혀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주변에서는 알 듯 모를 듯한 현상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일부 노조가 쟁의를 벌리면서 ‘遵價투쟁’이라는 생소한(?) 방법을 등장시키곤 하는데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고개를 갇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항공조종사 노조가 파업 전 단계로 준법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그 투쟁의 내용을 보면 ‘항공기 이·착륙을 전후해 활주로나 유도로에서 이동할 때 제한된 속도를 지키는 1단계’라고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노조가 즐겨 사용하는 준법투쟁 역시 열차속도와 정류장 정차 시간을 지킨다는 내용인데 아마도 최저속도를 유지하면서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상황으로 이해되지만 무지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법을 지키는 일’이 투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관심도 없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도 싫지만 준법투쟁이 시간과 속도 지키기라고 한다면 평소 운행상태는 ‘위법’이 아닌지 모르겠고 더욱이 안전운행에는 별 이상이 없는지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게된다.

준법은 투쟁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권고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짜증스런 무더위속에서 인쇄경영인들을 만나면 골치아픈 이야기는 피하고 화제를 시원한(?) 곳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보다 일감이 줄어들고 경영여건이 나빠졌는데 뭐 그리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여기에다 일부 인쇄인의 도를 넘은 덤핑행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인쇄사들이 수년동안 거래처의 눈치를 보면서 생산비 상승요인을 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마구 덤벼드는 행위는 인쇄업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벌어진 결과는 筆舌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인쇄물을 가져갔는데 원가개념 없이 입찰에 참여해서 스스로에게까지 재를 뿌리는 행위를 왜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4색국전 오프셋인쇄기 한 대 값이 15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대료, 리스료, 인건비, 세금 등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쇄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가 지켜져야만 한다. 최소한 조달청기준 요금은 유지해야 인쇄업계가 살아 갈 수 있다. 일차적으로 동업자끼리의 문제이므로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설 일도 아니고 보면 인쇄인 스스로가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범법계적인 遵價투쟁이라도 전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세익 · 편집주간)